

문창남문집

5 흰돛 제2부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문창남문집 5

흰뚝 제2부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文昌男文集. 5, 白帆. 第2部 / 文昌男著; 权贵女, 文春喜编. —北京: 民族出版社, 2006. 11

ISBN 7-105-08045-0

I. 文... II. ①文...②权...③文... III. ①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长篇小说-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34614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11月第1版 2006年1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13.125

字数: 357千字 定价: 30.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떠나지 않은 창남군

—간행사를 대신하여

《문창남문집》 간행위원장 남영전

우리 문단의 인기인물이었고 또한 늘 화제에 오르곤 했던 창남군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떠나간 창남군에게 꼭 해주어야 할 일 하나를 성사시키지 못해 《문창남》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료녕의 정철선생님이 창남군의 영결식에 가셨을 때, 창남군의 부인이 정철선생님께 창남군이 모아둔 수필복사본 한묶음을 보이더라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안았다. 이 수필묶음은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진황도에서 쓴 글인데 그가 출판을 넘두에 두고 책이름과 목록까지 다 만들어놓았었다. 만약 이 수필묶음이 출판된다면 창남군의 세번째 수필집이 된다. 하지만 일은 마음먹은대로 잘 되지를 않았다. 그러던중 창남군의 제자인 안영수씨가 5권으로 된 《문창남문집》을 펴내는 큰일을 맡기하여 해냈기에 나는 감개무량하지 않을수 없다.

창남군은 실로 뼈아픈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24세의 꿈많은 나이에 9년이란 긴긴 옥고, 2년 넘는 농촌개조생활, 말하기 쉽

고 글로 옮기기도 어렵잖겠지만 정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캄캄
철야의 암흑과 흑한이 가져다주는 뼈아픈 고통을 상상하지 못할것
이다.

그래서 새 날과 새 봄을 맞은 창남군은 서리서리 영킨 원한과
해방의 환희를 뜨거운 눈물로 엮었고 불타는 글로 웨쳤다. 갈증에
못견디어 비물 한컵 받아마시려다가 도리깨로 콩단 두드리듯 때
맞던 옥중생활, 10년만에 칠창문을 나와 초라한 차림으로 그가 살
던 옛집을 찾던 쓸쓸한 광경, 아들이 《특무》라고 부친님이 또다시
매맞아 세상뫼다는 청천벽력, 《립공속죄》란 말에 문예경연의 극본
을 쓰느라 런 이틀 밤을 꼬박 새웠고 사흘째는 코피를 쏟으며 책
상머리에 까무러치던 모습, 5층 아빠트로 새집들이 한 첫날밤에
잠 못들고 깊은 추억의 소용돌이속에 빠졌던 영상...그의 글을 읽노
라면 언제나 가슴이 몽클해지고 코언저리가 췌해남을 어찌지 못한다.

창남군의 이야기는 늘 끝없는 강물처럼 흘렀다. 같이 기차나
빠스로 여행을 할 때면 그의 이야기는 긴긴 레루와 도로보다 길었
고 호텔방의 모임에서는 그가 이야기판을 독차지하다싶이 하였다.
그의 경력과 수난사는 문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언제나 민족심과 정열로 끓어넘치는 글발, 구수하면서도 청산
류수인 언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양복호주머니에 늘 넣고다니
는 자그마한 거울과 빗을 꺼내여 머리칼을 단장하는 멋쟁이, 그와
같이 있는 좌석에서는 언제나 떠들썩한 폭소가 터져서 좋았다.

이렇게 인상적이던 창남군과의 마지막 만남은 1992년 봄 《흑
룡강신문》 문예부 문학모임에서였다.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
를 옮긴지 반년 남짓한 때였다. 회의를 시작될무렵 그가 회의장에
나타났다. 역시 멋진 양복차림에 환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다소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신문사초대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창녕기업을 소개하고 자신의 타산을 토로했다. 밤 10시가 되자 그는 일어서면서 돌아가서 불일이 있기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할빈에 온김에 자기가 안내할테니까 창녕기업을 한번 돌아보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이튿날 오전, 나는 한춘군과 함께 시중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창녕기업을 찾았었다. 그러나 창남군은 약속대로 나타나지를 않았다. 접수실 당직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급한 용무로 미처 우리에게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이른새벽에 진황도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후 창녕기업 본부가 진황도로 자리를 옮겼고 창남군 역시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사를 했었다.

진황도 바다가에서 창남군은 수시로 나에게 편지를 띄워왔다. 10권이 나 되는 장편대하소설을 쓴다고 해서 놀랐고 정치경제학을 새로 공부한다고 해서 돋보였으며 외국나들이의 감회를 적어왔기에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1996년 봄에 창남군이 배속에 흑이 생긴걸 몰래 병원에 가서 수술해던지고 봉대로 허리를 졸라맨채 그냥 《흰뚝》을 날려가고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나에게 알리면서 남긴 한탄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동안 나도 외로운 타향에서 곡절을 겪으며 <흰뚝>을 5부까지 썼다가 다 뒤엎어버리고 상, 중, 하 3부작으로 새로 출항하였소. 새로 쓴 상부 56만자는 올해 여름쯤 조한문으로 동시 출판될 듯. 중부, 지금까지 20여만자 나갔소.》, 《나이가 드니 이제 몸이 여의치 않구만.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주요목적은 반드시 완성하고 떠나야지...》, 《올해 가을 한달쯤 휴양하며 길림, 장춘의 벚들을 찾아가 만나려네. 그때 만나세!...》

그해 여름, 온다는 사람은 오지 않고 부고가 훌쩍 날아왔으니 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있으랴!

53세의 짧은 인생길에 곡절 많았던 창남군은 30년동안 문필

활동을 해온 우리 문단의 영향력있는 시인, 작가이다. 1967년 24세 때 그는 한편의 장편서정시때문에 《현행반혁명》으로 몰렸고 옥중에서도 시 쓰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문학장르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출판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문창남》 하면 그는 우선 시인으로 유명했지만 생전에 국내에서 시집 한편 출판하지 못했고 진황도에서 쓴 수필묶음은 여태껏 잠을 자고있었다. 처음에 구상하던 장편소설의 10부작 계획도 1, 2부는 출판되었지만 생애 마지막 1, 2년사이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 혼신을 불태워 새로 날리던 《흰돛》의 56만자에 달하는 미완성원고는 유작으로 남았다. 더우기 안타까운것은 새로 쓰던 최후의 유작원고를 문우들과 은사들에게 보내여 수개의견을 요청하였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정판룡교수님도 이 원고를 보고나서 《...창남이는 이제 대작가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원고는 지금까지 실종되어 주인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있다.

창남군은 참으로 불행했지만 그는 또한 복도 많은 사람이다. 그를 항상 존경하여온 제자 안영수씨가 그가 못다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었다. 수년동안 안영수씨는 《문창남문학전집》을 간행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춘, 정철, 서영빈, 김호웅, 오상순, 김재국, 김홍란 등 시인, 작가, 평론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간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남군도 가지고있지 않던 그의 발표작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동분서주하였고 작품의 정리에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었고 뜻을 같이하는 겨레 젊은이들의 힘을 모아 창남군의 시집, 수필집, 중단편소설집, 《흰돛》 제1부, 《흰돛》 제2부, 이상 5권으로 150만자 분량에 달하는 《문창남문집》출판을 성공시켰다.

《문창남문집》의 간행은 우리 문단의 하나의 큰 희사이다. 우

리의 문학사는 《문창남문집》의 간행으로 아름다운 한페지를 장식할 내용이 있게 되었다. 창남군의 글을 즐겨 읽던 독자들은 흩어져 있던 그의 작품, 잠자고있던 그의 작품을 이제 5권의 책으로 향수할수 있게 되었고 창남군을 모르고있던분들은 이제 우리 문단에서 활약하던 훌륭한 작가 한분을 알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될것이다. 그리고 연구가들은 이제 창남군의 자료수집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후배 안영수씨와 의기투합하여 적극 동참해준 젊은친구들이 고맙다. 동시에 여러 모로 수고해주신 간행위원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멋진 책을 펴내준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한 작가의 진정한 생명은 그의 작품이 독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것이라는것을 저 먼 진황도 바다에서 쉬고있는 창남군에게 전하고싶다.

2006년 10월 25일

장춘에서

차 례

1. 복수와 구원 / 1
2. 마적의 성화속에 / 13
3. 조선의용군 제1지대 / 26
4. 내전 폭발후 / 42
5. 산성진일화 / 61
6. 봉변 / 78
7. 담가대 따라 / 96
8. 심양해방전투 / 113
9. 동화세계 / 134
10. 석대숙풍운기 / 148
11. 동매선생 / 166
12. 도시구경 / 178
13. 재난 / 197
14. 피난 / 211
15. 심연 / 228
16. 해토무렵 / 246
17. 브라질방랑기 / 265
18. 동방집시풍막차 / 279

- 19. 원리당 황야 / 294
- 20. 풍년가 / 315
- 21. 요란한 북소리 / 331
- 22. 상빠울로농장 / 350
- 23. 또 휴학 / 365
- 24. 누나 / 385

1. 복수와 구원

종다리 허끝에서 해살이 쏟아진다. 땀꾸기 푸른 울음에 만물이 기지개 켜는 봄, 인류의 새 기원을 열어가는 1945년의 봄은 인간들에게 제나름의 꿈을 펼쳐주며 서서히 물결쳐왔다.

황도하자 골안 벼들숲엔 연초록빛 안개가 물물 서려오른다. 봄빛은 암탉이 병아리 품듯 포근하게 산비탈에 자리잡은 석대를일가의 초막집에도 갈마들었다.

간밤의 봄비에 발끝이 노랗게 바래운 햇비둘기가 춘곤에 쪽잠든 개울가 송아지 등허리를 간질구다가 《구구구...》 언덕너머로 사라진다. 제 울음에 죽고싶은지 까투리 한마리 깨드득이며 벼들숲 안개속에서 풍겨오르는데 술가지에 숨었던 보라매가 기다린듯 하늘을 차고 솟아 떠올거린다.

따스한 봄이로되 알낱이 꿈과 살륙의 차거운 갈등이 저 미물들 사이에도 오락가락하거늘 수십억을 헤아리는 인간종족들사이라고 조용할소냐.

앞 내가에 벼들보를 막아 신포이 눈에 물잡이하던 병호형제는 두렁가에 가지런히 앉아 뒤집힌 갈뿌리에서 뽕족뽕족 돌는 햇순을 장난스레 뽑아 쪽배를 틀어 띄웠다.

《형님, 옥에 갇힌 삼촌네 소식 있수?》

애릿한 갈잎쪽배는 한들거리며 퇴수구를 따라 개울로 흘러든다.

《하나교선생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지금 도교감옥에 있대. 그분이 옥바라지하느라 수고하나봐.》

《형님, 세월이 어떻게 될것 같수? 그렇게 잘되던 사업은 왜 버리고 락향하셨수? 이렇게 글 배워 땅 파먹구 살라구 뒤바라지 해준줄 아우?》

병옥의 끝말엔 원망 비슷한 쇠소리가 섞여있었다. 농사에선 오히려 형이 동생에게서 배우는 형편이었다.

《병옥아, 개구리가 주저앉는것도 더 멀리 뛰기 위함이다. 지금 왜놈은 망해가고 중국내부엔 국공 량당의 내전이 불만 달리면 터질 판이다. 이런 시골에 움추려있다가 보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거리바닥에서 빼앗기고 불에 타고 패가망신하는것보다 낫지 않느냐...》 병호는 저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다.

실버들 조용히 늘어진 개울가 뚝뚝새소리만이 뚝뚝뚝 가슴속에 맺힌 한을 물어쫓는듯하다...

5월 8일, 독일 나치스의 무조건 투항은 유럽 반파쇼전쟁의 승리적결속을 고하였다. 쏘, 미, 영 삼국수뇌자 포츠담회의에서 일본의 투항을 촉구하였으나 일본은 반기를 들고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였다.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던지고 소련은 중국 동북에 백만 홍군을 출병시켜 67만 일본관동군을 파죽지세로 밀어버렸다. 모택동은 《일제침략자에 대한 최후일전》이란 성명을 발표하고 일군진지를 향해 총공격을 발동하였다. 8월 15일 일본천황 유우렁이 무조건투항을 선포함으로써 중국 인민의 8년 항일전쟁은 승리적으로 결속되었다.

36년간 일제의 철제아래 만신창이 되었던 조선의 삼천리 금수강산은 《8.15》해방과 더불어 독립의 만세소리속에 소생의 피눈물을 흘렸다.

도교감옥에 수감되었던 석대숙은 끝내 해빛을 보고 서울로 귀환되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고국땅을 다시 밟았으나 《좌익》이란 딱지가 붙어 차디찬 감시망속에 또다시 몸부림치게 되었다.

원동 미군총사령 맥아더가 일본정부로 하여금 장개석정부와 그 군대에만 투항하게 명령하여 일, 위, 장 합류의 추태극을 벌리자 주덕, 팽덕회 총사령부는 장개석에게 전보를 보내어 그 명령을 견결히 반대하고 일군의 투항을 직접 접수하게끔 팔로군, 신사군에게 명령하였다.

민족모순의 완화와 더불어 국내 계급모순은 급격히 상승하여 중국은 두가지 운명, 두가지 전도의 대결전에 립박하였다.

산성진일대의 일본수비대놈들은 동북 위만군에게 투항하고 뿔뿔이 패잔병의 꼬락서니로 줄행랑치기 시작하였다.

《끝내 왜놈들이 망했구나! 폭정과 악법이 오래가는 법이 없니라...》

한평생 반일 애국애족의 길에서 로고와 심려로 자신의 한몸을 괴롭혔던 석대률은 모진 심장병으로 몸져 누운지 달포가 넘었다.

《해방된 창녕땅을 내 발로 밟고야 눈을 감겠는데...너희들은 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채 <삼팔선> 허리가 꺾여 고향길이 막혔구나...》 그의 고랑진 눈귀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병시중 드는 온 식구의 호린 얼굴에 뜨거움이 젖어 흘렀다.

석대률은 국운이 기울어지던 리조말엽 봉건속세에서 벗어나 남먼저 개화사상에 물젖어 눈뜬 수수하고 착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란 큰 그릇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려 온몸으로 울어온 사람이었다. 나라 주권회복과 민족부흥을 위한 제단앞에 내던진 몸이었다. 지금 그는 민족해방의 기쁨과 나라 분렬의 슬픔을 절감하며 마지막 숨결을 몰아쉬고있다.

병호가 살림밑천을 털어가며 구해온 안궁환도 그의 운명을 더

는 지탱해주지 못했다. 한많은 속세를 벗어나 타계로 떠나갈무렵 그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애들아, 너무 슬퍼 말아. 선한 사람은 죽어도 천당 가니라... 우리 석씨가문의 기둥인 너희들은 승냥이 죽으면 이리가 덮쳐드는 아직도 험악한 이 풍진세월에 정신 바짝 차려라. 힘과 지혜를 합쳐 생계를 이어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뼈속에 묻힌 조선사람이란 넋을 잊지 말아라... 먼 후날 나의 유골을 창녕 고향땅에 옮겨 묻어주길 바란다... 중국사람, 일본사람 백성들은 다 착하고 좋니라. 서로 도우며 하나님 뜻대로 착하고 강하게 살아라. 동아의 평화와 협력부강의 날이 꼭 오고야말것이다...》

석대를 떨리는 손으로 만손자 산원이를 찾았다. 며느리가 산원이를 안겨주자 그는 귀여운 보배둥이처럼 품에 안고 오래동안 말없이 손자의 감치르른 반고수머리를 쓰다듬었다. 산원이는 세상 모르고 《할배, 할배》 하며 해롱거린다. 자신의 사나다운 눈과 코, 큼직한 귀방울마져 닮은 손자를 한없는 사랑의 눈길로 여겨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참 장하게 잘생겼구나...이 애가 지금은 우리 가문의 장손이다...너희들 명심하거라...우리 조선사람은 예로부터 흉년에 굶어죽어도 곡식종자는 남겼고 자식공부는 시켰네라...알아야 면장이지... 될성부른 나무는 애목시절에 알아본다고 이 애 모습 비범하고 총명이 과인하니 장차 절세명인이 될 기상이라...한석봉어미처럼 온갖 지성 다 바쳐 이 애 공부를 끝까지 시키길 마지막으로 소원한다... 내 죽어 혼이라도 이 애 뒤를 따라다니며 보살펴주고 도와주리라...아 함...창녕...고향집 트랙에...지금쯤...감이...붉은 감이...익었...》

석대를장로의 심장이 마지막 박동을 멈추었다. 밤하늘 먹구름 사이로 별찌 하나가 긴 호를 그으며 떨어진다. 산비탈 초가집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가을매미들도 소리를 그치고 밤이슬을 맞는다.

횡도하자 동남골 잣술 우거진 산언덕 명당자리에 석대틀의 무덤이 고요히 자리잡았다.

《어머니, 이제 돌아갑시다.》 무덤가에서 남편을 잃은 절통으로 까무러치도록 흐느끼던 석씨부인은 아들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날 두고 홀로 가다니 웬 말이요?...산설고 물선 낫선 땅에 의지가치없는 애들만 남겨놓고...고생고생하다 좋은 세월 누리지도 못하고...내가 먼저 가야제...》

이날밤 병옥이는 손도끼를 갈아 품에 넣고 30리 산길을 단숨에 넘어 산성진 왕귀화네 집을 찾았다.

《형님, 오밤중에 흥두께 내밀듯 웬 일이요?》

《귀화...부친님이 세상뜨셨다...왜놈과 서지주 패거리 등쌀에 골병들어...》

《뭐라구?!》

귀화는 화들짝 놀란다. 귀화 모친은 동매를 깨워 그러안고 눈물부터 흘린다. 먼 창녕에서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살아온 마음의 언덕이 삽시에 허물어지는 아픔이었다.

《귀화, 내 오늘 원썩 값으러 왔어. 왜놈과 서지주 개다리 몇놈을 도끼로 쳐죽이지 않곤 속이 안풀려.》 병옥이의 음성은 가라앉았으나 관자노리에 지렁이같은 피줄이 일어났다.

《잘 왔소! 나두 언제부터 별러왔는데. 아버지 원썩을 갚아야지!》 귀화는 잠뱅이 걸치고 허리띠 조이며 지실에 내려섰다.

이들은 《애들아, 조심해...》란 소리를 등뒤에 남기고 어둠속으로 바람결같이 사라졌다.

일본수비대 뜨락은 텅 비어있고 국군 보초병만이 졸고있었다.

병옥이와 귀화는 보초병 한놈씩 목을 비틀고 장총을 빼앗았다.

《이놈들아, 수비대놈들 어디 치웠니? 안대면 죽인다!》

《저...저...역전으로...》

《뭣이?! 음...귀화, 역전으로 가자. 놈들이 도망치기전에.》

이들은 국군의 옷을 벗겨 갈아입고 역전으로 뛰었다. 산성진 역전은 온통 수라장이 되었다. 개척단으로 왔던 일본농민들이 울며 불며 어디선가 얻어맞아 피투성이 되어 늘어져있는가 하면 배고파 우는 어린것을 품에 안고 흐느끼며 아낙네들이 측은히 떨고있었다. 누가 돌맹이라도 또 던질가봐 한팔로 머리를 감싸고있는 꼴이 무수한 《ㄱ》자를 이루고있었다. 간악한 수비대놈들은 그림자도 없다. 그들은 첫차로 떠나가고 채 못오른 개척단 농부들이 남부녀대रो 다음 차를 기다리며 아우성치고있었다.

(살기등등하던 《대일본》의 대화민족 기세는 어디로 갔나. 나라가 망하면 다 저 꼴이야!)

병옥이는 귀화의 옆구리를 찼다.

《귀화, 저것들은 우리같은 농사군들이야. 건드리지 마. 우리 땅 빼앗고 개척단 부러먹던 두목놈들이나 찾아보자꾸나.》

《응.》

그들은 역전을 에돌아 개척단부락으로 돌입하였다.

어느 집에선가 갓난애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한 한족로친이 돌쩌귀처럼 버려진 전쟁고아를 품에 안고 휘청이며 나온다. 운신키 어려운 로인이나 몸져누운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젊은 일녀(日女)들이 남아 간호하며 뭇대로 되라는듯 몸을 내던지고있었다. 장자 붙은 놈이나 사나이들은 찾아볼수도 없었다. 평소 독을 쓰던 놈이 간혹 못 피해 맞아죽어 늘어져있었다. 텅 빈 집들에선 벽시계만이 똑딱거리고 눈 빨건 토비들이 살림살이 빼앗고 훔치느라 뼈를 본 개무리처럼 으르릉거린다.

한 집을 에도는데 녀인의 경악스럽고 처량한 비명소리와 함께 희희낙거리는 너털웃음소리가 울려나왔다. 다짜고짜 문열고 들어서니 토비 세놈이 애젊은 일본처녀를 겁탈하려 싱갱이질하고있었다.

방구석에 몸져누운 늑은이 입엔 수건이 틀어막혀있고 손마저 묶였다. 처녀는 이미 라녀가 되어 몸부림친다. 한순간 지나면 당하고야 말 처지였다. 세놈중 구레나룻을 한 놈이 먼저 하체를 드러내고 당나귀 그것같은 남근을 잔뜩 세웠다.

씩씩거리는 숨결에 가슴털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두놈은 도리질하는 처녀의 두팔과 다리를 붙잡았다...휘영청 밝은 달빛에 백설같은 일녀의 몸뚱아리가 경련을 일으킨다.

(아무리 미운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저이들은 순수 백성이 아니냐?)

병옥이의 눈엔 몸져누웠던 부친님 영상과 복스러운 안해의 얼굴이 떠올랐다. 토비들에게 시달림 받는 참화의 환각이 맴돌이친다.

(저런것도 사람이나?!)

《땅! 땅, 땅...》 느닷없는 총소리에 세 토비놈은 혼비백산하고 일녀는 까무러쳤다. 귀화도 병옥이와 같은 심정으로 천정에 총알을 날렸다. 그는 이 순간 요시꼬동생을 무섭게 떠올렸던것이다.

그들은 인사불성인 일녀에게 옷을 덮어 가리워주고 늑은이를 풀어주었다.

《아랑아도오 고자이마쓰!(고맙습니다.)》 늑은이는 놀라움과 환생의 기쁨에 진한 눈물을 두줄기 쏟았다.

《와다시다찌와 오나지 하꾸세이데쓰. 켜데 아꾸오 가다나께레바 나리마쎄!(우린 다같은 백성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병옥이는 류창한 일본말로 로인을 위로하며 쓴외 씹듯 얼굴을 찡그렸다.

(원썬 갇으러 온 놈이 원썬 족속을 구해주다니?!)

그는 자아모순에 빠져 머리를 잠시 싸쥐고 신음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었다.